

## 한·일 정상회담과 한계

### 곽진오

통일연구원 · 프로젝트 연구위원

어제 오후에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과 아베 신임 일본총리가 회담을 가졌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작년 11월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이래 11개월만이었다. 그러나 회담이 열리기 3시간 남짓 앞서 북한의 핵실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상회담 중 상당시간은 북핵사태 대처방안 논의에 할애되었으며 양국 정부가 전략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사뭇 어수선한 가운데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문제로 야기된 주변국과의 외교적 경색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갑자기 불거져 나온 핵실험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정상이 불쾌감을 공유함으로써 대북 공조의 실마리를 보인 회담이기도 했다. 이처럼 양국정상은 북핵문제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을 냈지만 중·일 정상회담에서처럼 공동발표문과 같은 합의문은 없었다.

참여정부 초기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2003년 2월 24일 오후 한국을 방문한 고이즈미 총리는 한국에서 1박을 하면서 까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회담에서 양정상은 미래지향의 협력관계 구축과 노대통령의 조기 방일에 합의하고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목표로 한·일·미 3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에는 화기에 애한 분위기에서 고이즈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고 셔틀 회담을 개최하기에 이르렀으나 2004년부터는 경색된 분위기에서 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애증(love-hate relationship)이 혼합된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으며 대체로 신중한 대화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다. 총리 취임 직후에 중국과 한국의 방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아베에 대한 외교적 배려도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회담의 최대관심사중 하나였던 아베총리 역사인식 문제는 여전히 매듭을 짓지 못한 채 갈등요인으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양국정상은 불행했던 과거사를 극복하고 협력을 통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위해 새로운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하자는 의견을 같이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이번 회담이 총리 취임 인사와 같은 성격을 띠는 가운데 양국 정상의 입장을 구체화 시키는데 부담을 느끼는 자리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역사인식문제와 관련하여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성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제2기 역사교과서공동위원회 출범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회담은 고이즈미 정권초기 한·일관계가 화기에애했던 것과는 비교되지만 그렇다고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듯하다. 현재 한·일 관계는 양국 국민들 간의 이념적 대립보다는 지도자들 간의 정책적 이념의 차이가 문제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중국간의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야스쿠니 참배문제는 논제가 되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정상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책을 집중논의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앞으로 아베 총리가 지금과 같이 역사인식문제에 대해 신중한 행보를 지속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역사인식 문제에 관한 행태에 있어서 아베 총리는 전임자인 고이즈미와 전략적 동질성을 띠고 있으며 전술적인 차별성만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일까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참배에 대해서 과거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답변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이런 태도는 앞으로 한국이 일본과 정상회담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고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만이 야스쿠니 참배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